

생명
생명과 자연, 그 놀라운 사이에서

A LIFE
Life, Nature, and the Wonders In Between

이동근 작가 연구

A Collection of criticisms about LEE Dong Keun

movisual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연비 조사구명

이동근(李東根, 1951~)

화가. 호는 돌팍, 전라북도 정읍 출생. 1970년대 전북 화단이 형성된 후 1세대 작가로,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1기생이다. 인상주의 화풍의 박남재, 이의주 교수의 영향으로 사생 기반의 풍경화를 주로 그렸다. 1980년대에는 극사실주의에 몰두하여 1985년 〈흰 천이 있는 정물〉로 제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한다. 1980년대 말 운명적으로 제주의 자연을 접한 후부터 사실주의에서 표현주의로 나아가면서 제주의 거칠고 변덕스러운 자연의 모습을 명도 대비, 보색 대비 등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재현한다. 2008년 이후 다시 고향 정읍으로 되돌아와 미학적 형식과 주제의 구속에서 벗어나 풍경이 아닌 생명을 다루면서 회화를 기반으로 오브제 설치, 드로잉 퍼포먼스, 시인과의 협업 등으로 활동 반경을 확장하고 있다.

Lee Dong-keun(b. 1951, Jeongeup)

Lee Dong-keun is considered the first-generation artist after the formation of Jeollabuk-do Painter Society in the 1970s and is one of the inaugural class students of the Art Education Department at Wonkwang University's College of Education. Influenced by the impressionist style of professor Park Nam-jae and professor Lee Ui-ju, he primarily focused on landscape painting based on natural observations. In the 1980s, he was indulged into hyperrealism and in 1985, he received a special award at the 4th Korea Art Grand Exhibition for his work 〈Still Life with White Cloth〉. At the end of the 1980s, after a fateful encounter with the natural beauty of Jeju Island, he transitioned from realism to expressionism, dramatically capturing the rugged and capricious aspects of Jeju's nature through techniques such as brightness and color contrast. After returning to his hometown of Jeongeup, Lee Dong-keun has expanded his artistic horizons by breaking free from the confines of aesthetic forms and themes since 2008. He now focuses on life rather than landscapes, engaging in various artistic activities such as object installations, drawing performances, and collaborations with poets.

ⓒ이동근·문재선
이 브로셔에 실린 모든 내용의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LEE Dongkeun·MOON Jaeseon

일러두기

1.작품명은(〈〉), 문장 중 직접 인용은(“”), 단행본은(《》), 논문, 기사명, 자료명은(「」)로 표기했습니다.
2.구술채록의 내용은 인터뷰 당시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표기법과 내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3.본 브로셔는 방대한 분량의 서적 출판물을 요약하여 펴낸 자료입니다.

Preface

1.The titles of artworks are enclosed in angle brackets(〈〉), direct quotations in sentences are indicated with double quotation marks(“”), single-volume publications are represented in double angle brackets(《》), and titles of papers, articles, and sources are enclosed in angle brackets (「」).
2.The content of the spoken interviews is preserved in its original format and wording to capture the on-site ambiance during the interviews.
3.This brochure is a summarized version of the original extensive publication.

생명

생명과 자연, 그 놀라운 사이에서

A LIFE Life, Nature, and the Wonders In Between

이동근 평전

A Collection of criticisms about
LEE Dong Keun

목차

p6 책을 펴내며 l 생명, 날개의 숲으로 비상하다 …… 문재선

1부 자연과 생명

p12 사생 예찬 “풍경에서 자연으로, 자연에서 생명으로” …… 정 현

p18 이동근의 ‘돌아온 길’ 그의 최근 몇 년의 작품 감상 …… 인 단

2부 생태주의와 생명

p24 생태주의 관점으로 본 이동근 회화의 동시대성 …… 정 현

p28 희망의 생명, 이동근 작품에 대한 외국 평론가의 견해 …… 마이순 리즈크

에세이

p34 생명(生命)과 생명(生命)이 나누는 끊임없는 대화 …… 전승훈

p36 이동근의 작가 연보

contents

p6 Preface l “Life, Soaring into the Forest of Wings”
By Moon Jae-seon

Part 1: Nature and Life

p13 Praise for Landscape Drawing from Nature
“From landscape to nature, from nature to life”
By Jung Hyun

p18 A Life of Hope, Views by a Foreign Critic Regarding the Work of Lee Dong Keun
By Mysoon Rizk

Part 2: Ecological Perspective and Life

p24 “Contemporary aspects of Lee Dong-keun’s painting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By Jung Hyun

p28 Lee Dong-keun’s Return Path_Review on his paintings drawn for the past few years
By Yin Dhan

Essays

p34 Ongoing Dialogues Between Life and Life
By Jeon Seung-hoon

p36 Lee Dongkeun’s Biography 1951-

생명, 날개의 숲으로 비상하다

“바람도 없고 꽃이 지고 꽃대만 남았구나. 그림 속에서 꽃대를 떠올린다.
이 계절은 너라는 꽃대만 남았구나. 어느새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산중턱에 자리 잡은 선돌이라는 이동근 작가의 작업실은 중첩된 산 능선의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풍경 속에 자리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시작한 〈생명〉이라는 연작이 시작되는 시점과 완벽하게 맞물린다. 작품 속에서 바라보는 대상과의 합일을 실천하고자 했던 작가의 혜안은 바로 이곳의 자연 속에 위치한 스튜디오 공간이 대부분 말해준다. “생명체를 그려낼 때 다시 태어난다. 산중에 있는 공기가 일러준다.”라고 말하는 작가의 지속적인 화업에 대한 모색은 매일같이 변화무쌍하다. 생명을 통해서 스스로를 그 안에 함께 끌어들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번 아르코 작가연구-조사-비평 지원사업 〈생명A Life〉을 통해 이동근 작가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연에서 풍경으로, 풍경에서 생명으로 변천해가는 시기별, 생애사별 디지털 자료가 전무후무한 점에 지중하게 되었고, 최근작 〈생명A Life〉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초기 조사 작업에 전념하였다. 인터뷰 형식의 구술채록을 문헌화(전승훈, 〈생명과 생명이 나누는 대화〉)하고 일부는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총 4인의 연구자들이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기초자료들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작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아카이빙(아키비스트 임승한, 윤영돈)을 위해 작가의 활동 도록, 카다로그, 생애사와 관련한 사진자료 그리고 회화 작업에 기초자료로 쓰였던 사진이미지 등을 데이터화하고, 시기별 수백여점에 대한 작품 촬영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고전적인 회화의 변천사에서처럼 화법의 변화에만 치중한 작품들로 보일 수도 있지만, 캔버스 위에 숨겨져 있는 시기마다의 과감한 실험성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들을 특화시켜 거장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장을 열어 헤치면서 이번 연구의 가치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중략)

이번 연구 과정은 반열에 오른 이동근 작가의 50여년 화업을 기록하고 심층적인 작가연구에 대한 토대가 이루어졌다. 언제나 변화를 서슴지 않는 작가는 한국미술사에서 당대의 구상과 추상의 이항대립을 완전하게 해소시켜왔던 그 공로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끝으로, 이번 아르코 작가조사 연구 비평 사업은 책임연구자인 정현 미술평론가와 3명의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아키비스트 임승한 기획자의 뜨거운 마음과 현재 전북도립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동근 작가의 아들인 이강산 전시기획자의 지속적인 사전 연구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번 연구의 실천은 절대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생명〉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앞으로의 생태주의적 스펙트럼이 한없이 넓어지고 있다. 작가의 화업은 앞으로 중대한 예술적 가치로 세상에 남게될 것이며, 세대를 초월하는 새로운 작가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2023년 깊은 가을날에
문 재 선(총괄기획자)

Life, Soaring Into the Forest of Wings

"There's no wind, and the flowers have withered, leaving only the flower stalks. In the painting, I recall the flower stalks. This season, only your flower stalk remains. Before we knew it, we were sharing stories with each other."

The studio of the artist Lee Dong-keun, situated on a mountain slope, is nestled in the heart of overlapping mountain ridges. This serene landscape perfectly aligns with the inception of his ongoing series, "Life," which began in the 2000s. The artist's vision of achieving harmony with the subjects observed in his artwork is eloquently expressed by the natural setting of this studio. The artist articulates, "When capturing living beings, I am reborn. The mountain air inspires me." His continuous exploration in the realm of artistry has been a captivating journey marked by daily and ever-changing artistic endeavors. It all began with immersing himself within life, drawn through the medium of life itself.

Through the ARKO Artist Research-Investigation-Critique Support Project titled "A Life," we were able to conduct an in-depth study of the artist Lee Dong-keun. However, the overwhelming abundance of digital data documenting the transitions from landscapes to nature and from nature to life, categorized by seasons and life stages, prompted us to focus primarily on the initial research tasks. We meticulously documented interview transcripts in a literary format, following the approach outlined by Jeon Seung-hoon in "〈Ongoing Dialogue between Life and Life〉." Additionally, some interviews were recorded in video format. Four researcher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tively participated in reorganizing foundational materials spanning from the 1970s to the present day.

Furthermore, for archival purposes (led by archivist Im Seung-han and Yun Young-don), we digitized the artist's activity records, catalogs, photographic materials related to his life, and photographic images used as foundational materials for his painting works. A comprehensive photography session capturing artworks from different periods was conducted, totaling several hundred pieces. While the artworks might initially seem to emphasize changes in painting techniques, attention has been redirected to the bold experimental nature concealed within each period on the canvas. Specializing in these perspectives has opened up a discourse that allows for the reevaluation of Lee Dong-keun as a master, paving the way for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Omission)

This research process has documented over 50 years of Lee Dong-keun's artistic journey and laid the foundation for an in-depth artist study. The artist, who consistently embraces change, deserves a closer examination of his contributions in resolving the dichotomy between abstraction and figuration in contemporary Korean art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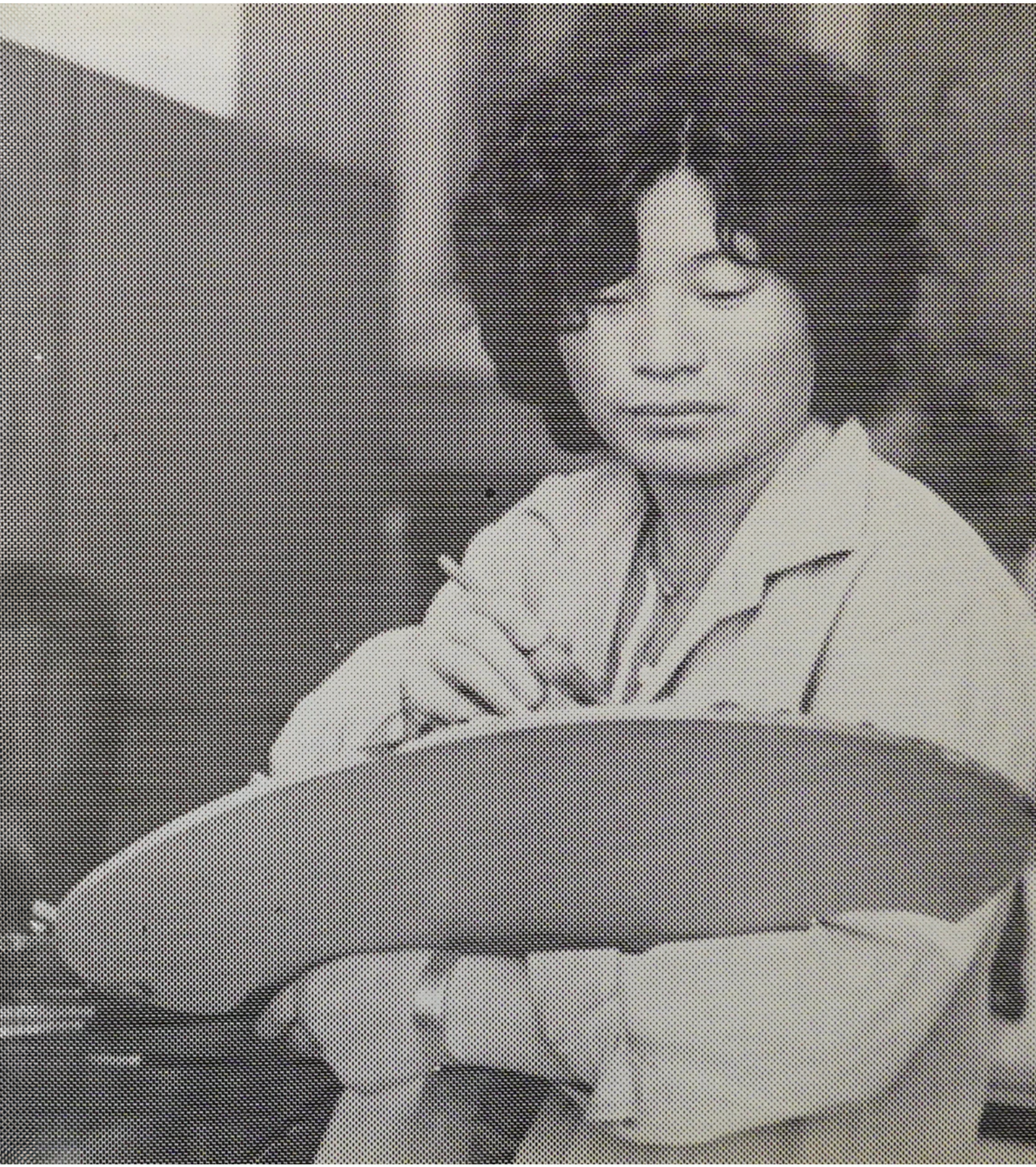
Finally, this ARKO artist research and critical study projec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passionate involvement of four researchers, including the dedicated efforts of the activist planner Lim Seung-han. Additionally, the ongoing preliminary research by Lee Kang-san, a curator currently working as a research scholar at the Jeonbuk Provincial Museum and also the son of the artist Lee Dong-keun, played a crucial role. The emergence of the ecological spectrum in the 〈Life〉 series continues to expand limitlessly. The artist's body of work will undoubtedly endure as a significant aesthetic legacy, and we hope that research on new artists transcending generations will persist incessantly.

On a deep autumn day in 2023,

Moon Jae-seon(General Plaaner)



1982년 『이동근 화집』을 발간하면서 제1회 개인전을 준비할 당시 작업실에서의 모습
The artist's appearance during the preparation for the first solo exhibition featuring



사생 예찬
“풍경에서 자연으로,
자연에서 생명으로”

정 현(미술평론가)

사생은 동양의 문화이자 자연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나타내는 미학적 방식일 것이다. 이동근의 회화는 바로 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의 전북 화단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나아갈 길을 찾던 시기로, 당시 이동근은 극사실주의에 몰두한다. 당시 극사실주의는 단색화와 민중미술이 견인하던 주류미술계의 틈새에서 인간과 기계 사이가 벌인 일종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이동근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풍경에 집중하면서 자신만의 주제 의식과 화풍이 자리를 잡게 된다. 1990년대 제주에서의 삶은 그간 꾸준한 사생으로 다져진 필력이 응축되어 뿜어져 나오는 시기이다. 이동근은 제주의 원시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자연환경에 매료된다. 이러한 자연과의 공명은 자연스레 인상주의적 즉흥성, 표현주의적인 심리적 충동,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생명력 속에서 순전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제주 시기는 학습된 회화의 관습에서 벗어나 세계를 표피가 아닌 생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꾸준한 관찰과 사생의 힘은 이후 형식에서 벗어나 조형설치, 퍼포먼스, 협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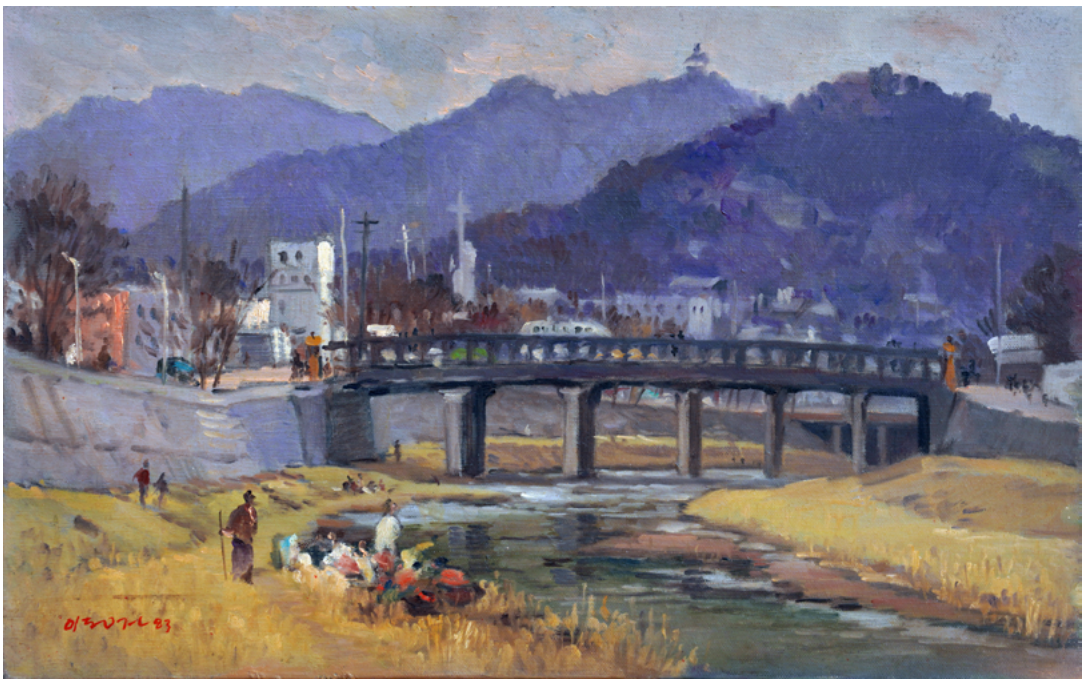
Praise for Landscape Drawing from Nature "From landscape to nature, from nature to life"

JUNG Hyun(Art Critic)

Drawing from nature is an aesthetic approach that represents the Eastern culture's mindset and attitude towards nature. The paintings of Lee Dong-keun are rooted in the philosophy of drawing from nature. During the mid-1970s to the 1980s, the Jeollabuk-do Painter Society was at a crossroads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and Lee Dong-keun became deeply immersed in hyperrealism. During that time, hyperrealism was a kind of competition that took place in the interstices of the mainstream art world, driven by monochromatic art and folk art. However, from the mid-1980s onwards, Lee Don-geun shifted his focus towards landscapes, where he developed his own themes and artistic style. The 1990s marked a period when his consistent dedication to drawing from nature culminated in his life on Jeju Island. He became captivated by the primal yet emotive natural environment of Jeju. This resonance with nature led to the discovery of pure beauty within the unspoiled vitality of nature, embodying spontaneity, expressionism, and an unadulterated sense of beauty. The period when he stayed in Jeju became a catalyst for breaking away from conventional painting norms and delving into the essence of life rather than its superficial aspects. In this way, consistent observation and the power of drawing from nature became the driving force to venture into various forms beyond the conventional, such as sculptural installations, performances, collaborations, and more.



〈붉은 산 Red mountain〉
24.1×33.4cm, 캔버스에 유채, 1972



〈전주천 Jeonju stream〉
33.4×53.0cm, 캔버스에 유채,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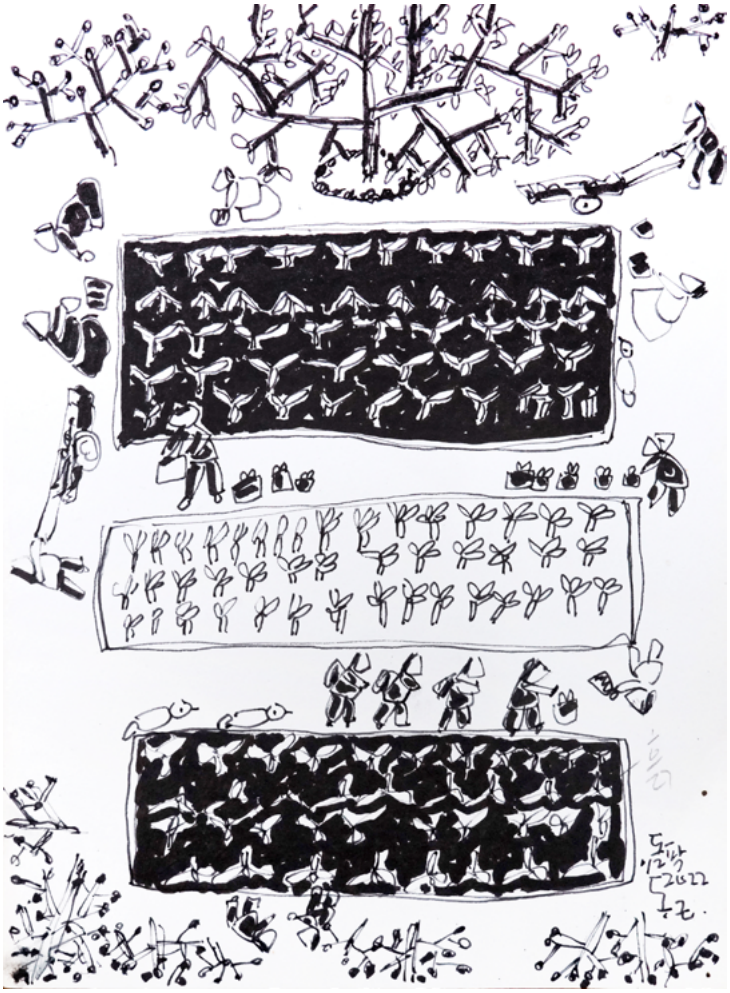
〈누가 볼 수 있을까? Who Can I It?〉
72.7×60.6cm, 캔버스에 유채, 2012



〈하얀 천이 있는 정물 Still life with white cloth〉
145.5x112.1cm, 캔버스에 유채, 1985



〈여수에서 In Yeosu〉
31.8X40.9cm, 캔버스에 유채, 2003



〈생명 A Life〉 시리즈 작품을 제작하기 앞서 그린 에스키스
종이 위에 먹, 2022

이동근의 '돌아온 길_ 그의 최근 몇 년의 그림 감상'

인단(미술평론가, 쓰촨미술대학교 미술학과 미술사론 교수)

2010년대에는 이동근의 회화에서 색 대비가 여전히 강하지만 그림은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는 자연주제의 작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인식도 높은 '새'와 '나무'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 새의 이미지는 낙서처럼 간결하며, 아마도 그는 아이들의 간단한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다. 이 단계부터 이동근의 작품 대부분이 '생명'으로 명명된 것도 어쩌면 그가 '새'와 '나무'의 이미지에 매료된 이유일지도 모른다. 나무는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나무는 무한한 가지와 잎을 낳을 수 있다. 이것은 더불어 번성과 풍요함을 연상시킨다. 하늘은 높고 새는 날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의 모습은 언제나 무한한 생명력을 연상시킨다. 어떤 그림에서는 어미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도 볼 수 있어 따뜻하고 감동적이다. 2013년에 그린 한 작품에서는 두 마리의 새가 다정하게 마주 서 있어 '집자지수 여자해로(执子之手 , 与子偕老, 즉, 그대의 손을 잡고 여생을 해로하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물론 어른 새와 어린 새의 모습을 표현했을 수도 있음). 이것은 아마도 생명의 탄생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특히 두 새 주변을 둘러싼 '후광'에 주목했다. 작가는 그들 주변에 파란, 초록, 노랑, 빨강 등 색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배경을 채웠는데, 이 모양은 고대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태극도를 연상시킨다. 이 이미지는 한국 예술가에게는 낯설지 않을 것이다. 도교와 유교 문화에서 우주의 시작이자 생명의 시작을 의미한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道生一 , 一生二 , 二生三 , 三生万物, 도가 하나를 만들며, 하나가 둘을 만들고, 둘이 셋을 만들며, 셋이 만물을 낳는다) 〈노자〉 또는 복희씨(伏羲氏)의 '관물취상…시작팔괘'(观物取象……始作八卦, 자연속의 사물을 관찰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팔괘를 완성된다)〈역전(易傳)〉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인지 이 '후광'의 둘레에 더 작은 크기의 낙서처럼 표현된 '새'들이 많이 보이고, 이들은 두 새의 후손들로 '생명'의 주제를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같은 중국인에게 '새'가 '후광'에 휩싸인 화면은 쉽게 상고시대 태양인 현조(Xuan bird)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많은 고고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한반도부터 중국 동남 해안까지, 새 숭배가 흔한 문화 현상이었다. 작가가 이러한 역사적 유래를 반영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작품은 이동근의 대표작 중 하나로, 그림의 내용은 감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림의 언어로 매우 자유롭게 표현외었다. 붓의 습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묵화와 같은 효과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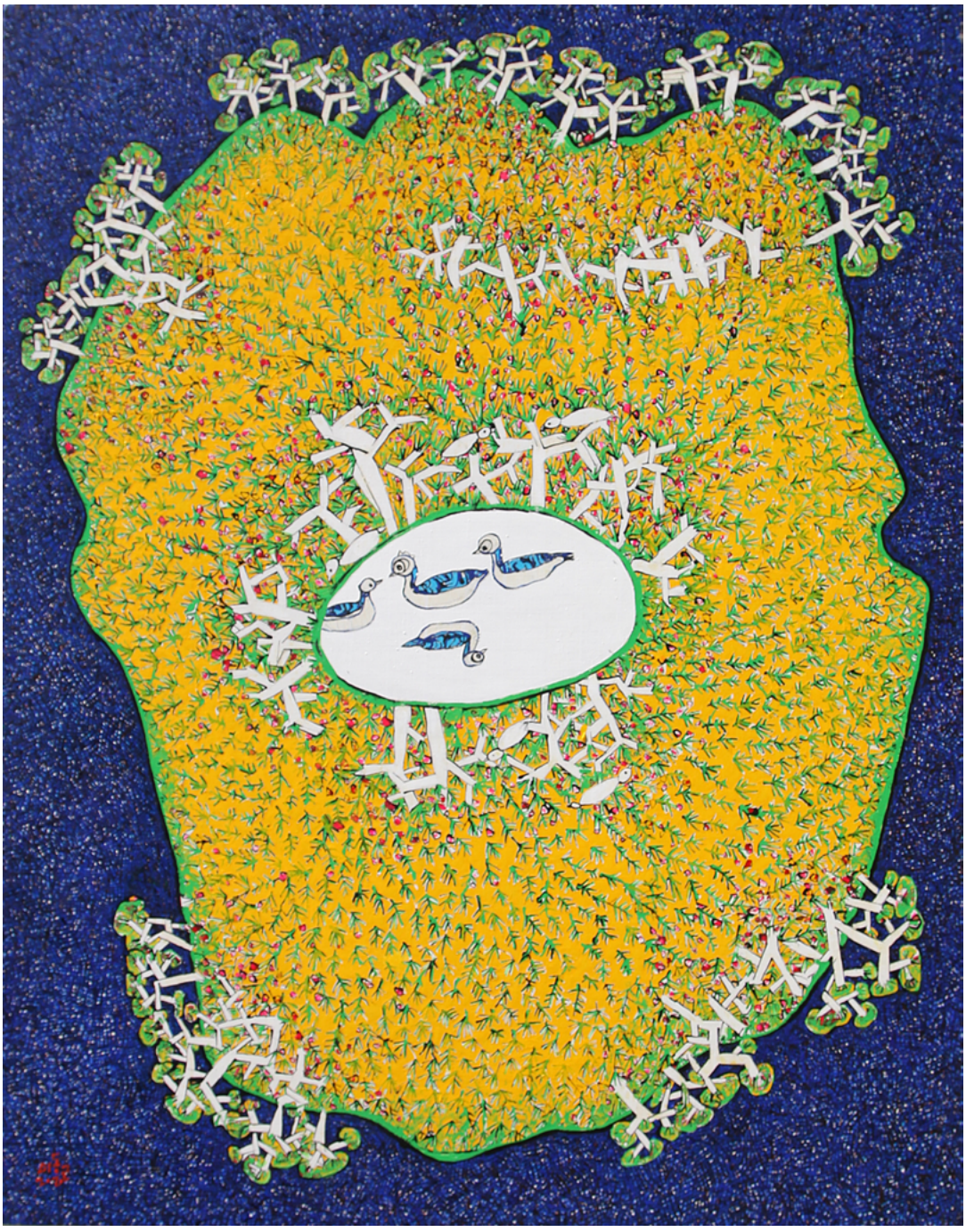
Lee Dong-keun's 'Return Path_Review on his paintings drawn for the past few years

Yin Dhan(Art critic, Professor of Shichuan Fine Arts Institute)

In the 2010s, in Lee Dong-keun's paintings, the strong color contrast persists, but there has been a fundamental change in essence. He began investing more energy in nature-themed artworks, and you can find images of the widely recognized "birds" and "trees" in almost all of his works. The depiction of these birds is concise, almost like doodles, and it seems that he might be drawing inspiration from simple drawings made by children, perhaps as a way to return to his inner child. From this stage onward, it might also explain why most of Lee Dong-keun's works have been given the name "Life." It appears that trees represent infinite possibilities for growth, where each tree can produce an unlimited number of branches and leaves, symbolizing fertility and abundance. The high skies and freely soaring birds in Lee Dong-keun's artworks consistently evoke a sense of infinite vitality. Some paintings even depict heartwarming and touching scenes of mother birds feeding their offspring, adding to the overall warmth and emotion of the artwork. In a work from 2013, two birds are shown affectionately facing each other, which may symbolize the idea of "holding your hand and growing old together," or it could represent adult and young birds bonding. A notable aspect in this artwork is the radiant "halo" surrounding the two birds. The artist freely utilizes colors such as blue, green, yellow, and red to fill the background, and this composition might bring to mind the Taijitu, which is a fundamental symbol in ancient culture. It represents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and the start of life, and this concept is integral to Daoism and Confucianism. In Daoism, it's expressed as "Dao gives birth to one, one gives birth to two, two gives birth to three, and three gives birth to all things." The image of the "halo" surrounding the birds and the smaller doodle-like representations of birds within it may be seen as an interpretation of the theme of "life." To someone like me, a Chinese individual, the depiction of "birds" enveloped by a "halo" on the canvas easily recalls imagery from the Shang Dynasty, specifically the Xuan bird. Research conducted by many archaeologists indicates that during this era, bird worship was a prevalent cultural phenomenon, stretching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southeast coast of China. It's possible that the artist was inspired to reflect on this historical lineage in his work. This painting stands as one of Lee Dong-keun's iconic pieces, emphasizing emotion while maintaining a very liberated and free-spirited visual language. The high humidity in the brushwork creates an effect reminiscent of ink wash paintings.



〈생명 A Life〉
244×122cm, oil on canvas, 2020



〈생명 A Life〉
122×155cm, oil on canvas, 2020



〈생명 A Life〉
116.8×91.0cm, oil on canvas, 2013



〈생명 A Life〉
5,000×2,500cm, 캔버스에 유채, 2013



〈생명 A Life〉
116.8×91.0cm, oil on canvas, 2013

“생태주의 관점으로 본 이동근 회화의 동시대성”

정 현(미술평론가, 책임연구자)

2000년대 초, 이동근은 침잠의 시기를 가진다. 시대는 점점 더 빠르게 발전이라는 욕망을 쫓아갔다. 제주의 역동적인 자연에서 익숙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 후, 그는 느린 속도로 풍경이 아닌 생명을 지닌 존재로 자연을 깊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오늘날 기후 위기와 생태 문제는 인류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의 쟁점이다. 2008년 이후 이동근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일상과 주변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곡점은 이미 제주 시기의 작업에서 나타났지만, 귀향 이후 비로소 만개한다. 정읍 시기의 작업은 구상, 비구상, 평면, 입체, 사물과 같은 형식과 매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미시세계부터 거시세계를 오가면서 그 사이에 작가의 기억과 경험이 혼합된다. 특히 세포를 연상시키는 모티브는 작가의 관점이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명 중심으로 나아가는 마이크로코스모스의 세계관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Contemporary aspects of Lee Dong-keun’s painting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JUNG Hyun(Art Critic, Principle Investig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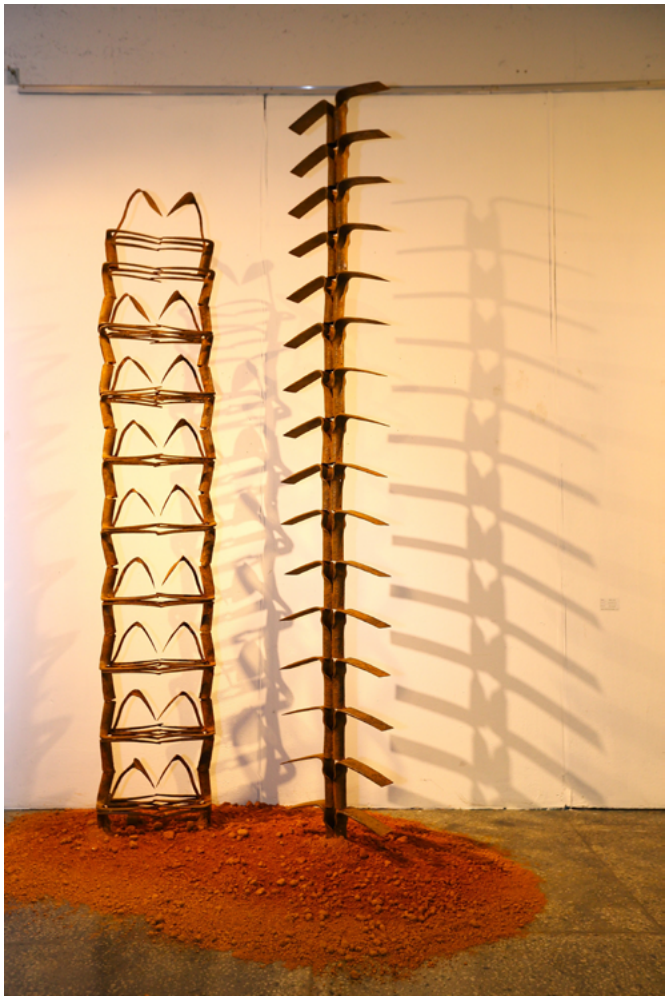
In the early 2000s, Lee Dong-keun experienced a period of withdrawal. The era was driven by an ever-increasing desire for rapid progress. After returning to the familiar embrace of his homeland in the dynamic nature of Jeju, he began to deeply contemplate nature not as a mere landscape, but as a living entity at a slower pace. The climate crisis and ecological issues today are not only human concerns but shared global challenges that all life forms on earth must collectively address. Since 2008, Lee Dong-keun has been capturing his daily life and the world around him on canvas,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traditional forms. This turning point had already emerged during his time in Jeju, but it fully blossomed upon his return to his hometown. His work during this period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form and medium, transitioning seamlessly between microcosms and macrocosms while blending the artist’s memories and experiences. Particularly, motifs reminiscent of cells indicate an evolution of the artist’s perspective from anthropocentrism towards a life-centric microcosmic worldview.



〈한라산 Hala Mountain〉
197.0×290.9cm, 캔버스에 유채, 1998



〈생명 a life〉
150×2150cm, 캔버스에 유채, 2013



〈생명_날개의 숲 A Life_The Forest of Wings〉
42.0×240.0×17.0cm[좌], 45.0×264.0×7.0cm[우], 호미, 철용접, 2020



〈겹침 Overlapping〉
162.2×130.3cm, oil on canvas, 2011

희망의 생명, 이동근 작품에 대한 한 외국 평론가의 견해

마이순 리즈크(미술사학자, 털리도 대학교 미술학과 근·현대 미술사 교수)

인류세 시대의 이 시점에, 거의 62세의 시리아계 미국인 미술사학자의 호기심 가득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 화가 이동근(1951년생)은 인간경험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경지에 이르렀다 - 당신과 나는 같으며, 당신과 가장 작은 곤충도 같고, 당신과 당신의 머리 위로 뻗어가는 나무도 같으며, 당신과 당신의 발 아래 흙도 같다. 지구 상 문명이 초래한 수많은 분할에도 불구하고, 인류와 자연을 크게 나누는 것은 없다. 이는 수 만년의 인류 역사에 걸쳐, 특히 급속하게 산업화된 마지막 몇 세기에 가장 명백하고 파괴적으로 나타난다.

2000년 대부터 그의 회화 스타일에 나타난 급격한 변화에 관하여, 어떻게 이러한 경지에 도달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몇 가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그가 다녀온 여행들이 있다. 특히, 2003년 남아프리카 국가 한 곳을 방문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전북 내장산 공원 인근의 산 속에 그의 멋진 작업실이 있다. 헌신적 예술가가 겪었을 법한 자연스러운 진화도 있다. 시리아의 화가 하라 마하이니(Hala Mahayni)(1947년생)가 다마스커스에서 내가 모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나에게 이야기해준 것처럼 - 그녀는 세 단계를 설명해 주었는데, 각 단계가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하였다.(1) 그림의 물질과 기술을 배치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2) 직접 관찰법에서 주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배우는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3) 상상 속에서 그리는 법을 배우는 단계. 마하이니님은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게 이루어지며, 달성하는 데 몇 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동근 화가가 이 가장 어려운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략)

인간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생활하고 자연이 광활한 우주와 조화롭게 공존한다. 아마도 우리는 예술 작품의 맥락에서만 그러한 조화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매우 폭력적이고,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며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행성은 어려움에 처한 듯 하고, 최근의 전 세계적 환경 연구는 많은 식물과 동물 종이 붕괴 직전에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가 직면한 임박한 종말론적 위기 상황에서 인류의 역할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이동근과 같은 한국 예술가와의 만남은 희망을 주었다. 예술이 문명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관람객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뜻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서로 간의 확장일 뿐 아니라 생물이던 무생물이던 이 어려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 개체들과 공존할 의지를 확장시킬 수 있다.

A Life of Hope, Views by a Foreign Critic Regarding the Work of Lee Dong Keun

Mysoon Rizk(Art Historian, Professor of Toledo University)

In these days of the Anthropocene period—and from the curious perspective of this nearly sixty-two-year old Syrian American art historian—South Korean artist Lee Dongkeun(b. 1951) occupies an admirable position regarding human experience: You and I are the same; you and the smallest insect are the same; you and the tree reaching above your head are the same; you and the soil beneath your feet are the same. There is no great divide between Humanity and Nature—despite the divisions that civilizations have imposed on Planet Earth, across some ten thousand years of human history, most evidently and most destructively in the last few rapidly industrializing centuries.

Regarding the dramatic changes that have emerged in the artist's late painting style, since about the year 2000, one may therefore wonder how did he come to arrive at this position? Several explanations may be offered. There are his travels, particularly a trip Lee Dongkeun made to the country of South Africa, in 2003. There is the location of his spectacular studio in the magical area of the mountains near Naejangsan Park, in Jeonbuk Province. There is the natural evolution of any dedicated artist—as was once explained to me by Syrian painter Hala Mahayni(b. 1947), in Damascus, when I had the opportunity to return to my native country: she described three phases, each requiring at least ten years:(1) learning to understand how to deploy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of painting;(2) learning to understand how to apprehend a subject from direct observation; and, most importantly,(3) learning to paint from the imagination. This last phase, Ms. Mahayni argued, is the most important and yet most difficult to achieve, and can take an artist several decades to reach. There is no question that Lee Dong Geun has arrived at this most difficult phase.

(Omission)

People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and nature existing in harmony with the vast universe. It may be possible that we will only ever be able to witness such harmoniousness in the contexts of works of art. We are living in a time that seems overly violent, increasingly fast-paced, technologically out-of-control, and dominated by extreme climate change. Our planet appears to be in trouble, and recent global environmental studies seem to indicate that many species, both plant and animal, are on the verge of collapse. It may be a while before humanity sorts out its role in what appear to be a series of impending and apocalyptic crises. My visit with Korean artists like Lee Dong Geun, however, give me hope. It may seem naive to think that art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the future of civilization. Nevertheless, the work of Mr. Lee offers a critical vantage that could potentially move viewers to expand their willingness to peacefully coexist: not only with each other, critical as that is, but also with every material entity, whether animate or inanimate, that otherwise occupies this troubled world.



〈생명_날개의 숲 A Life_The Forest of Wings〉(부분 part)
42.0×240.0×17.0cm좌, 45.0×264.0×7.0cm우, 호미, 철용접, 2020



〈생명 A Life〉 유화 작품 준비를 위한 스케치 이미지 Sketches for the 'A Life' series artworks



〈생명Ⅲ A Life Ⅲ〉
40.5×32.5cm, oil on canvas, 2016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케치 여행 당시의 작품 Artist Lee Dong-keun's sketch works from his trip to Africa, 2003



〈생명〉 시리즈 연작을 준비하기 위한 에스키스,
선돌 작업실 주변의 자연 환경을 표현함. 2010

Sketches for the 'A Life' series artworks.
It shapes or serves as a motif for the surrounding landscape of the current studio



〈생명 A Life〉, 162.2×130.3cm, 캔버스 위에 유화, 2013

생명(生命)과 생명(生命)이 나누는 끊임없는 대화

전승훈(문화기획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개나리꽃 그러잖아. 이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개나리꽃이잖아. 그래 나도 개나리꽃을 이렇게 보면서 스케치 이렇게 하잖아. 하면서 저 안에는 뭐가 있지 뭐가까이 보잖아. 걔네를 꽃 피웠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쳐졌는데 왜 쳐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대화를 해보는 거야.

"야, 개나리야 너 어떻게 쭉 퍼졌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지금 아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작년에 개가 끊어서 아프다고. 그래도 새순이 나왔구나. "서리 때문에 아파", "기후변화 때문에 나 지금 시들고 있어."라고 대답을 해줘.

사람들은 개나리꽃이 피었구나만 생각을 하는데, 걔를 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봄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속에 보면 움직이는 거, 새들도 막 움직이고 있어, 이 얘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나는.

그러면서 이제 조형성도 있게, 좀 회화적으로 예술성 있게 재구성을 해. 그것은 작가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 전통적인 빛깔. 그런 것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누구든지 살면서 빛깔에 다 오방색은 다 가지고 있거든. 인간이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가지고 있고 보고 살고 있어. 스며들어 있다는 얘기야. 그게 서양화를 전공했던 한국화를 전공했던 아니든. 다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우리 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의 작가의 내 것, 내 세계라는 것이 그 속을 알고 눈을 뜨면서 보고 생각하는 자체가 자기의 어떤 세계. 자기 거를 만드는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익어가면서 말하자면 말년에 자기 얘기를 끝내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나는 생명이라는 걸 보고 얘기해. 그런데 그림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생명체를 그릴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새라고는 안 그리지. 그림 속에서 해석해서 다시 태어난 그것을 등장해서 그리지. 그건 내 마음이야. 나는 그리고 싶다는 것뿐이고 새는 다시 태어난 것이지. 그림 속에서 다시 그 공간 속에서 그림의 속에서 다시 태어난 생명체가 움직인다는 것이지.

이 산에 있는 공기들이 나한테 얘기해줘서 겁나게 행복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뭐라고 말할까보다,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런데 오늘은 바람도 없고 이제는 다 꽃도 없고 꽃대만 있거든. 난 그림 속에서도 꽃대를 생각하거든 이 계절은 다 꽃대만 있구나. 이 꽃대에 대화를 하면서 있는 거지. 참 행복해.

Ongoing Dialogue between Life and Life

Jeon Seung-hoon

When we look at it like this, it's a forsythia flower, right? From a distance, it looks like forsythia. So, I sketch forsythia while thinking about what's inside. What's inside? Why is it arranged like this? I'm having a conversation with it.

Hey forsythia, how did you spread like this?" When I ask, it replies, "I'm hurting right now." So I ask why, and it says it got cut last year and it hurts. Yet, new shoots are sprouting. "I'm hurting because of the frost," it says, "and I'm withering due to climate change.

People usually think the forsythia is in bloom, but when you look closely and talk to it, you'll realize it's waiting for spring. And inside, you'll see movement; birds are moving around. That's what I try to capture in my paintings.

And now, with a sense of form, a touch of fine art, and a more painterly artistic quality, I'll re-create it. That's something an artist can do in their own way. Our traditional colors, these colors are things we've all had since we were young. Throughout life, as South Koreans, we all have these colors. They've seeped into us.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majored in Western painting or Korean painting. We're born with these colors.

So, an artist's "my own," "my world," is knowing what's within. It's a world where you open your eyes and observe, a world that you're creating as your own. As you mature, it's not about wrapping up your story and departing, but rather, it's about finishing your own story toward the end, I'd say.

I speak about life when I look at it. However, paintings are reborn. So when I'm drawing a living being, let's say, a bird, I don't draw it as a specific type of bird. I reinterpret it and bring it back to life within the painting. That's my perspective. I'm just drawing what I want, and the bird is a reimagined entity that's born again within the painting, moving within that space, within the painting.

I'm incredibly happy because the air on this mountain talks to me. We have such conversations, you know. It's not about what they say; it's about where we meet and how we converse. But today, there's no wind, and all the flowers are gone. Only the flower stalks remain. Even in my paintings, I think about these flower stalks. This season is all about flower stalks. I engage in conversations with them. It's truly a joyful experience.

이동근의 작가 연보

1951.2.12 전라북도 정읍군 영원면 신영리 452번지에서 아버지 이황기와 어머니 유중임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남

1958(7세) 이리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일반학과 공부보다는 미술에 큰 관심을 보여 매일 그리기를 하였음

1964(13세) 이리중학교에 입학하였고, 오로지 미술 특별활동에만 열성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냄

1969(18세) 원광고등학교 3학년 신분으로 출품한 《제1회 전라북도미술대상전》에서 유화작품 〈가을잎이 지듯이〉로 입선을 수상

1970(19세)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1기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학업을 수학하였고, 당시에 인상주의 화풍을 선도했던 박남재, 이의주 교수에게 인상주의 화풍을 학습하게 되었음

《제2회 전라북도미술대상전》에 출품하여 유화작품 〈석정〉으로 입선을 수상

1971(20세) 《제3회 전라북도미술대상전》에 출품하여 유화작품 〈흔적〉으로 입선을 수상

1973(22세) 《제5회 전라북도미술대상전》에 출품하여 유화작품 〈고운〉으로 특선을 수상

1973. 8. 24 – 1976. 6. 1 육군 35사단 근무

1976(25세) 《제8회 전라북도미술대상전》에 출품하여 유화작품 〈흔적〉으로 동상을 수상했음

《제1회 토색전(1977.2.22~25)》 (풍남화랑, 전주)

토색회는 원광대학교 미술교육과 학과 동아리로 태동되었으며, 야외스케치 활동을 주로 하였음. 그가 초대회장을 하였고 토색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

1977(26세) 《제9회 전라북도미술대상전》에 출품하여 유화작품 〈고풍〉으로 특선을 수상

1978(27세) 《제2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유화 작품 〈고풍〉으로 입선을 수상

《제15회 목우회공모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유화작품 〈고풍〉으로 특선을 수상

1957년에 창립된 목우회는 구상미술 작가들의 상호협력과 친목을 도모하고 후진양성 등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술단체임.

《제10회 전라북도미술대상전》에 출품하여 유화작품 〈고풍〉으로 특선을 수상

1979(28세) 《제2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유화작품 〈외갓집 뒤뜰〉으로 입선을 수상

《프랑스 르살롱 Le Salon SAF(Société des Artistes Français), 파리 그랑빨레미술관》전에서동상 수상

《제16회 목우회공모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유화작품 〈뒷뜨락〉으로 입선을 수상

《제11회 전라북도미술대상전》에 출품하여 유화작품 〈외갓집 뒤뜰〉으로 금상(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

후원자 김병수 대표이사와의 첫 만남

그 당시 호남고속 직원이었던 김병수는 시내버스 운행점검을 위해 금산사를 방문하였고, 금산사 다리 밑에서 스케치를 하던 장발의 사람을 발견을 하여 대화를 시도하여 이동근 작가와긴 인연을 맺게 됨. 이후 이동근 작가를 후원하기 시작 함.



1969년 원광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미술실에서의 작가의 모습. 같은 해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회 전라북도미술대상전에서 〈가을 잎이 지듯이〉라는 작품으로 입상



1980년대 작가의 작업실 '석정미술연구실' 의 건물 모습 전경



프랑스 《Le Salon SAF: Société des Artistes Français(파리 그랑팔레미술관)》에서 수상했던 금상 상장 이미지

1980(29세) 《제2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구상부문에서 유화작품 〈고풍〉으로 입선 수상
《제17회 목우회공모미술전람회》에서 유화작품 〈고풍〉으로 목우회장상 수상
《제2회 신라미술대상전》에서 유화작품 〈고풍〉으로 특선 수상
《프랑스 르살롱 Le Salon SAF(Société des Artistes Français), 파리 그랑빨레미술관》 전에서입선 수상

1981(30세) 《제3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구상부문에서 유화작품 〈결(結)〉으로 입선 수상
《제3회 신라미술대상전》에서 유화작품 〈결(結)〉으로 최고상 수상
《프랑스 르살롱 Le Salon SAF(Société des Artistes Français), 파리 그랑빨레미술관》전에서 금상 수상

1982(31세) 《제1회 개인전(1982.9.11.~18)》(전북예술회관, 전주) 개최
《이동근화집(李東根畫集), 원광사, 1982.9.5.》 출판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구상부문에서 유화작품 〈고풍〉으로 특선 수상

1983(32세) 《제2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구상부문에서 유화작품 〈고풍〉으로 입선 수상
《제4회 신라미술대상전》에서 유화작품 〈고풍〉으로 특선 수상
원광대학교에서 소묘 및 서양화실기 강의(1983.3~1988.8)

1984(33세) 《제3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구상부문에서 유화작품 〈결(結)〉로 입선 수상
《제5회 신라미술대상전》에서 유화작품 〈결(結)〉로 특선 수상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석사학위논문 〈춘곡 고희동의 생애와 작품세계〉라는 논문 발표
국립 부산대학교에서 서양화실기 강의(1984.3~1984.8)

1985(34세) 《제4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구상부문에서 유화작품 〈하얀천이 있는 정물〉로 특선 수상
《제2회 개인전(1985.1.5.~1.15)》(전북예술회관, 전주) 개최
국립 전남대학교에서 서양화실기 강의(1985.2~1988.2)

1986(35세) 《제4회 전미회전(1986.6.28.~7.4)》(전북예술회관, 전주),
작가 오주현, 원창희, 윤농현, 이대식, 이승백 등이 함께 참여함.
《제1회 신작전 창립전_서양화300호전(1986.4.8.~4.20)》(서울갤러리,서울)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활동
참여작가: 구자승, 김배히, 김병모, 길일해, 김진, 남충모, 손순영, 송영명, 송용, 음영일 이동근, 이장우, 이태길, 장이규, 장철욱, 정승주, 진원창, 차일만, 최낙경, 홍윤표
《제2회 신작전(1986.9.23.~9.31)》(대구태백화랑,대구)

1987(36세) 《제3회 신작전(1987.4.28~5.3/1987.5.6~12》(서울갤러리, 서울 / 한광미술관, 부산)

1988(37세) 국립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미술학과 교수 재직(1988-1994)

1989(38세) 《제3회 개인전(1989.12.1.~12.7)》(세종미술관, 제주) 개최

1990(39세) 《제4회 개인전(1990.1.16.~1.21)》(대성화랑, 전주) 개최



1982년 작가의 첫 개인전과 함께 출간한 〈이동근화집(李東根畫集), 원광사, 1982.9.5〉의 표지이미지



1982년 전북일보 보도 〈재능 자랑보다는 순수성 앞서야, 무엇인가 의미있는 작품 그릴터〉, 이영모 기자, 1982.9.10



1988년 창립 30주년 목우회 미술전람회 도록 표지이미지



1980년대 야외에서 사생하는 작가의 모습 전경

1991(40세) 《제5회 개인전(1991.7.12.~7.21)》(코아백화점 이벤트홀, 전주) 개최

1994(43세) 제주대학교 미술학과에서 퇴임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168-3번지 대림빌딩 301호로 작업실 이전

1995(44세) 《제6회 개인전(1995.10.10.~10.16)》(갤러리고을, 전주) 개최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직을 퇴임하고 제주도에서 그려왔던 작품들을 모아 열었던 개인전이었음. 이 시기부터 작가의 예술세계는 "종래의 사실주의 화풍에서 벗어나면서 그 사실성과우미성에 낭만성을 곁들이게 되었다"고 최병길 미술평론가 비평함

1996(45세) 작업실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9-16번지 상가 건물로 이전.

서울에서 전주로 작업실 이전시 호남고속 김병수 대표이사의 후원으로 작업실을 사용함

1997(46세) 우석대학교에서 실기강의(1997.3~98.12)

1998(48세) 원광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창시절에 함께 수학하였던 70학번 동기인 이종만, 오무균과 함께《3인전(1998.12.4.~12.10)》(전북예술회관, 전주) 서로 다른 화풍의 작품들을 선보였고 특히200호 대작위주로 구성되어져 선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음.

1999(48세) 작업실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6-9번지 4층으로 새로 옮겼으며, 그해 연말에《제7회 개인전(1999.12.17.~12.23)》(전북예술회관, 전주)을 개최

이 전시회에서는 사실주의, 인상주의에 신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등의 화풍이 가미되는경향을 보여주었음. 사물의 색채는 과거에 비교하여 더욱 강렬하고 화려해졌으며, 리드미컬한 운동감으로 지각되는 변화감있는 붓 터치들이 가미되었기 때문임. 구도법에서도 동양화의 심원법과 고원법이 활용되어 화면에서의 구성이 과거에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그의 풍경화에서 인물들이 등장하는 점은 큰 변화 중 하나임.

《99 화랑미술제(10.2~10.10)》(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한국화랑협회 주최

2000(49세) 《제20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구상부문 서양화분과 심사위원 역임

《제61회 목우회원전(2000.6.15.~23》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1(50세)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36-5번지 2층에 《이동근갤러리(2001.6.29)》를 개관

《제8회 개인전(2001.6.29.~7.5)》(이동근갤러리, 전주) 개최

《제62회 목우회원전(2001.10.29.~11.6)》(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개관기념초대전(2001.9.17~23)》(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초대형(2,100X1,300cm) 무대메인막 〈소리사랑〉 작품 설치

일본의 주)마루소라는 해외 기업과의 공동작업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적인 것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됨.

〈3인전(2001.11.1.~11.10)〉(전북예술회관, 전주)

2002(51세) 《결나이테 500호전(2002.2.22.~2.28)》(전북예술회관, 전주)

참여작가 : 강정진, 국승선, 고상준, 김두해, 김부견, 김재수, 박상규, 양만호, 이동근, 이성재,최원



2001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초대형 무대막 설치작품 〈소리사랑〉 제작 과정 전경



2020년 전주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생명(2020.11.6.~12.5, 이강산 기획)〉 개인전 전시 전경

2003(52세) 1월에 아프리카 일대(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을 약40일간 스케치 여행을 다녀옴.

이성재, 김영민, 박상규, 김세로나 작가가 함께 여행함. 아프리카에서 스케치를 바탕으로작품 230여 점을 모아 5월에 《제9회 개인전_이동근 세계기행-아프리카를 가다(2003.5.2.~5.15)》(전북예술회관, 전주 · 이동근갤러리, 전주)를 개최함

아프리카의 모습들을 해학적으로 그려냈는데, 그 '프리미티브'한 멋은 그에게서 '천진난만한' 멋으로 변화되었고, 이 개인전에서는 또한 그가 전국 산하를 돌며 화폭에 담은 수채화도선보였는데, 서정성이 짙게 드리워진 작품 대다수가 고향에 안긴 포근함을 안겨주었음.

1《제7회 전북예술상》 미술부문 수상 (사)전북예총연합회 주관, 주)하림문화기획단 후원

2004(53세) 《제10회 개인전(2004.7.1.~7.15)》(이동근갤러리, 전주) 개최

이 전시회의 작품들에서는 사물의 형태가 변형되고 색채는 더욱 강렬해졌고, 표현주의적색채가 차츰 드러나기 시작함.

(유)호남고속 대표이사인 김병수의 후원으로 결성된 금평(錦平)미술상을 제정함.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음. 1회 수상자 조각가 엄혁용, 2회 수상자 강남인 2회를 마지막으로 중단 됨

제66회 목우회원전_베트남 작가 합동교류전 《동방의 얼(2004.7.21~27)》(세종문화회관, 서울)

2005(54세) 《제2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판화분과 심사위원 역임

세 개의 삼인전을 통한 전북미술의 회고와 전망 《돌아보다(2005.3.17.~4.1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06(55세) 정읍시 칠보산 자락에 위치한 《선돌》 스튜디오로 이주(2006.2.15.).

《보물섬을 지켜라, 독섬 독도전(2006.8.11~9.24)》(전북도립미술관, 완주)

국립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재현으로써의 자연(2006.3.15.~11.1)》 (전국 15개소)

2010(59세) 작업실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7-10번지 4층 상가 건물로 이전.

전주 작업실 재이전시 또다시 호남고속 김병수 대표이사의 후원으로 작업실을 사용함

90평 규모의 넓은 작업실을 후원받아 대작위주의 작업을 하였으며, 2013년 개인전에 큰 모멘텀이 됨. 이동근 갤러리도 또한 이전 함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개관기념 《전북미술의 오늘, 천년의 비상(2010.5.6.~25)》(인사아트센터 내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서울)

2011(60세) 《제11회 개인전_자연 그리고 생명》(이동근갤러리, 전주) 개최

2013(62세) 《제12회 개인전_생명을 품은 목가적인 서정풍경(2013.10.23.~29)》, (인사아트센터 1층·지하1층, 서울), 제12회 개인전에서는 80여 점의 대작 위주로 작품을 선보였음. 그에게 있어 생명은 곧 생성과 소멸의 반복을 의미하며, 이러한 생명의 중요성을 자연의 이미지를 차용하 여 더욱 강렬해진 색채와 해학적 이미지로 표현함.

《제3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판화분과 심사위원 역임

2016(65세) 《제13회 이동근 기획초대전_22년의 기다림(2016.11.5.~12.4)》(성안미술관,제주) 개최

"작가는 작품으로써 말을 하는 것"이라며,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미술학과에 재직할 당시 제자 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진 개인전이었음. 1980년대 제주 풍경부터 생명 시리즈까지 총 40여 점을 선보였음.

《전북미술 모더니티 역사전(2016.2.19.~4.10)》(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8(67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해외전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제14회 개인전_생명의 창조와 소멸》 (Gallery Vu, 캐나다 몬트리올) 개최

2019(68세) 제27회 목정문화상 미술부문 수상

2020(69세) 《제15회 이동근 기획초대전_생명(2020.11.6.~12.5)》(전주현대미술관,전주) 개최

이동근 작가의 아들이자 현재는 전북도립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산 전 시기획자가 큐레이터로 참여하고, 〈아버지라는 화가 이동근〉이라는 기획의 글을 소개함.

대자연과의 명상과 음유가 탄생시킨 사물들의 우화적 표현이 엿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였고, 최병길 미술평론가는 "생명이라는 전제를 통해 음양의 세계를 대립적관계가 아닌 조화와 융합의 세계로 격상시키면서, 작가와 주변의 모든 관계조차도 조화로움으로 승화시키고 있 다"고 비평함.

2022(71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하는 《2022-2023 작가조사-연구-비평》 부문에 작가로 전라권 역으로는 유일하게 선정, 사업명 : 〈A LIFE〉로 선정.



2006년에 처음 이전한 정읍 칠보산 자락에 위치한 선돌 작업실에서의 작가의 현재 모습

Chronology of Artist Lee Dong-keun's Life and Work

1951	Born as the son of Lee Hwang-gi and Yoo Jung-im in 452 Sinyeong-ri, Yeongwon-myeon, Jeongeup-gun, Jeollabuk-do.
1958 (Age 7)	Enrolled in Iri Elementary School, showing a keen interest in art and drawing daily.
1964 (Age 13)	Entered Iri Middle School, passionately engaged in special art activities.
1969 (Age 18)	Participated in the 1st Jeollabuk-do Art Exhibition, submitting the oil painting 〈Like Falling Autumn Leaves〉 as a third-year student at Wonkwang High School and won recognition.
1970(Age 19)	Lee Dong-keun entered Wonkwang University as the first-generation scholarship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pursuing his academic studies diligently. During this period, at the age of 19, he emerged as a leading figure in the Impressionist style under the guidance of professors Park Nam-jae and Lee Ui-joo. Awarded with an honorable mention for the oil painting 〈Seokjeong〉 exhibited at 《the 2nd Jeollabuk-do Art Exhibition》
1971(Age 20)	Awarded with an honorable mention for the oil painting 〈Traces〉 exhibited at 《the 3rd Jeollabuk-do Art Exhibition》
1973(Age 22)	Awarded a special prize for the oil painting 〈Delicate〉 exhibited at 《the 5th Jeollabuk-do Art Exhibition》 Served in the 35th Infantry Division of the Army from August 24, 1973, to June 1, 1976.
1976(Age 25)	Awarded a bronze medal for the oil painting 〈Traces〉 exhibited at 《the 8th Jeollabuk-do Art Exhibition》 Participated in 《the 1st Tosak Exhibition》 (February 22-25, 1977) held at Pungnam Gallery in Jeonju. The Tosaek Association was established as a student club in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at Wonkwang University, primarily focusing on outdoor sketching activities. He served as the inaugural president and took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the Tosaek Association.
1977(Age 26)	Awarded a special prize with his oil painting titled 〈Traditional Beauty〉 at 《the 9th Jeollabuk-do Art Exhibition》. Organized by the established Mokuhoe founded in 1957 to promote mutual cooperation and friendship among conceptual artist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rt culture, he received a special award at the 15th Mokuhoehoe Open Art Exhibition held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lected for his work Traditional Beauty in the 27th National Art Exhibition with a tendency toward hyperrealism, awarded the Grand Prize (Minister of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Award) at the 11th Jeollabuk-do Art Exhibition.
1979 (Age 28)	Selected for his hyper-realistic painting (The Backyard of a Neighbor's House at the 28th National Art Exhibition, received an award at Le Salon SAF (Société des Artistes Français) in Paris, Grand Palais Museum,
1980 (Age 29)	Selected for the hyper-realistic painting "Traditional Beauty" at the 29th National Art Exhibition. Received the Mokuhoehoe Chairman's Award at the 17th Mokuhoehoe Open Art Exhibition held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warded Special Prize at the 2nd Silla Art Awards.
1981 (Age 30)	Selected in the conceptual category at the 30th National Art Exhibition. Won the top prize with the painting Road in the Western Painting category at the 3rd Silla Art Awards. Received a Gold Prize at Le Salon SAF (Société des Artistes Français) in Paris, Grand Palais Museum.
1982 (Age 31)	Published the art collection Lee Dong-keun's Art Collection by Wongwangsa on September 5, 1982. Held the first solo exhibition at the 1st Individual Exhibition (September 11-18, 1982) at Jeonbuk Arts Center in Jeonju. Awarded Special Prize in the conceptual category at the 1st National Art Exhibition.
1983 (Age 32)	Married Ahn Jong-suk and had a daughter, Nara, and a son, Gangsan.

Selected in the conceptual category at the 2nd National Art Exhibition.

Received a Special Prize at the 4th Silla Art Awards.

1984 (Age 33) Awarded with the selection prize in the figurative category at the 3rd National Art Exhibition with a realistic oil painting titled "Wood-line"

Received a special award at the 5th Shilla Art Exhibition.

Graduated from the painting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with a thesis titled "Chungok Goheedong's Life and Art World."

1985 (Age 34) Received a special award in the figurative category at the 4th National Art Exhibition with a realistic oil painting titled "Still Life with White Cloth."

Held the 2nd solo exhibition at Jeonbuk Art Center in Jeonju.

1986 (Age 35) Participated in the 4th Jeonbuk Art Exhibition along with artists Oh Ju-hyun, Won Chang-hee, Yoon Nong-hyun, Lee Dae-sik, and Lee Seung-baek.

1987 (Age 36) Participated in the 3rd New Works Exhibition at Seoul Gallery and Hanguang Art Museum in Busan.

1988 (Age 37) Served a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 at Jeju University College of Humanities from 1988 to 1994.

1994 (Age 43) Retired from Jeju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relocated the studio to Daelim Building, 168-3 Poi-dong, Gangnam-gu, Seoul.

1995 (Age 44) Held the 6th solo exhibition at Gallery Goeul in Jeonju, showcasing works created in his hometown. The art world of the artist evolved into a combination of realism, impressionism, and later impressionism, according to art critic Choi Byeong-gil.

1998 (Age 48) Held a joint exhibition, "3 Artists Exhibition," with Lee Jong-man and Oh Moo-gyun. The exhibition showcased artworks with different styles, and it was repeated in 2001.

1999 (Age 48) Moved the workspace to 4th floor, 36-9 Central-dong, Wanju-gu, Jeonju, and held the 7th solo exhibition at Jeonbuk Art Center. The exhibition demonstrated a tendency toward a combination of realism, impressionism, and post-impressionism. Notable changes included more vibrant and colorful depictions of objects, rhythmic brushstrokes conveying lively movements, and a shift in composition using the depth and high ground techniques of Eastern painting.

Participated in the "99 Hwarang Art Festival" organized by the Korean Gallery Association, showcasing a solo exhibition that continued the previous artistic tendencies.

2000 (Age 49) Served as a judge for the 20th National Art Exhibition.

2001 (Age 50) Held the 8th solo exhibition titled "Nature and Life" at the I-dong-geun Gallery in Jeonju, and concurrently opened the "I-dong-geun Gallery" on July 1, 2001. Participated in the 62nd Mokwoo Association Members' Exhibition at Seoul Metropolitan Art Museum and the "Invitation Exhibition for the Opening of the Korean Sound Culture Hall" at the exhibition hall of the Korean Sound Culture Hall in Jeonju.

Installed a large stage curtain titled "Sound Love" in the Great Hall of the Korean Sound Culture Hall, measuring 2,100 by 1,300 cm. Explored Korean elements deeply during a visit to Japan for a joint project with the overseas company "Marusora."

2003 (Age 52) In January, he embarked on a sketching journey to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in Africa, accompanied by fellow artists Lee Sung-jae, Kim Young-min, Park Sang-gyu, and Kim Se-rona. Collecting over 230 sketches from the trip, he held his 9th solo exhibition titled "Lee Dong-keun's Global Journey - To Africa" in May at Jeonbuk Arts Center and Lee Dong-keun Gallery in Jeonju. The exhibited works depicted the scenes of Africa in a mystical way, transforming its 'primitive' charm into an 'innocent and pure' allure. The exhibition also featured numerous watercolor paintings that he created while traveling across the country, presenting artworks with a profound sense of lyricism that conveyed the

warmth of his hometown. Lee Dong-keun received the Art Award in the visual arts category at the 7th Jeonbuk Arts Awards, hosted by the Jeonbuk Arts Federation and sponsored by the Hareem Cultural Planning Group.

2004(Age 53) Held the 10th solo exhibition at the Lee Dong-keun Gallery in Jeonju. In this exhibition, the forms of objects underwent transformation, and the colors became more vivid, gradually revealing expressionistic coloration. Lee Dong-keun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Operating Committee for the Geumpyeong Art Prize, sponsored by Kim Byung-soo, the CEO of Yoo HN Company. A few years earlier, Kim Byung-soo, who coincidentally encountered the artist working outdoors, actively supported and sponsored the artist. Using the pen name "Geumpyeong," which means a beautiful and peaceful place, Kim Byung-soo, then the vice president, embraced the artist's work and became actively involved in supporting art-related projects, including the Geumpyeong Art Prize. Additionally, Lee Dong-keun participated in the 66th Mokwoo Association Members' Exhibition, a joint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with Vietnamese artists titled "Faces of the East" held at Sejong Cultural Center in Seoul.

2005 (Age 54) Served as a judge for the 25th National Art Exhibition of Korea.

Particpiated in a three-person exhibition titled "Looking Back" held at the Korea Sound Culture Center Exhibition Hall in Jeonju, providing a retrospective and outlook on Jeonbuk art (from Mar. 17~ Apr. 10, 2005)

2006 (Age 55) Relocated to the "Seondol" Studio situated on the slopes of Mt. Chilbo in Jeongeup, Jeollabuk-do (February 15, 2006).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Protect the Treasure Island, Dokdo Exhibition" held at Jeollabuk-do Provincial Art Museum in Wanju (Aug. 11 to Sep. 24, 2006). He also took part in the nationwide cultural outreach program organized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itled "Exploring Museums, Nature as Representation" (Mar. 15~ Nov. 1, 2006〉 which ran from March 15 to November 1, 2006.

2010 (Age 59) Held a special exhibition, "Contemporary Art in Jeonbuk: Soaring for a Millennium,"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Seoul branch of Jeonbuk Provincial Museum (May 6~25, 2010) (Seoul branch of Jeonbuk Provincial Museum in the INSA ART CENTER)

2011 (Age 60) Held 11th Solo Exhibition at Lee Dong-keun Gallery, Jeonju.

2013 (Age 62) Lee Dong-keun organized his 12th solo exhibition, "A Picturesque Landscape Embracing Life," at the Insa Art Center located in Insa-dong, Jongno-gu, Seoul. The exhibition took place from October 23 to 29, 2013, showcasing over 50 major artworks. For the artist, life symbolizes the repetitive cycle of creation and destruction, and he expressed the significance of life using vibrant colors and mystical imagery inspired by nature.

2016 (Age 65) Lee Dong-keun held his 13th solo exhibition titled "The Wait of 22 Years" at the Seoung An Art Museum in Jeju. Through his artworks, the artist expressed his thoughts, emphasizing that creating art is a form of communication. This exhibition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Lee Dong-keun as it was a commitment he made to his students during his tenure at Jeju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Humanities, and it featured around 40 works spanning from the 1980s to new pieces. Additionally, the exhibition "Modern Art History of Jeollabuk-do" took place at the Jeollabuk-do Provincial Museum in Wanju from February 19 to April 10, 2016.

2018 (Age 67) Held 14th Solo Exhibition at Gallery Vu, Montreal, Canada

2019 (Age 68) Recieved the 27th Mokjeong Cultural Award for contributions to regional cultural and artistic development.

2020 (Age 69) In November 2020, Lee Dong-keun held his 15th solo exhibition titled "Life" at the Jeonju Contemporary Art Museum, located in Jeonju, Jeollabuk-do. The exhibition showcased works that reflected a mythical expression of objects born from meditation and the harmony of nature. Lee Kang-san, the artist's son and currently an art researcher at the Jeollabuk-do Provincial Museum, participated as the curator. The exhibition featured a curated essay titled "〈The Artist Named Lee Dong-keun, the Father〉" by Lee Kang-san. Renowned art critic Professor Choi Byung-gil commented, "Through the premise of life, he elevates the world of Yin and Yang not in conflicting relations but into a harmonious and blended realm. Eve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rtist and his surroundings are transformed into harmony."

2022 (Age 71) Ongoing participation in the ARKO (Arts Council Korea) Artist Research and Critique Project for 2022-2023 with the project titled
"A LIFE."

생명

생명과 자연, 그 놀라운 사이에서

A LIFE
Life, Nature, and the Wonders In Between

이동근 작가 연구

A Collection of criticisms about
LEE Dong Keun



ARKO LEE Dong-keun Artist Research and Criticism <A LIFE>

Contributors **JUNG Hyun** Art Critic,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ine Arts, Inha Universirty Principal Researcher of <A LIFE>
Mysoon Rizk Art Historian, Professor, Department of Art History, University of Toledo, USA **In Dhan** Art Historian, Professor, Sichuan Fine Arts Institute, China
Essay & Interview Contributors **JEON Seunghoon** Cultural planner, Iksan City Cultural City Support Center
Archivists **IM Seunghan** Curator, Administrative Director of Jeo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YOON Youngdon** Archivist, Intern Curator of Jeonbuk Museum of Art
HAN Myonghee, PARK Chiseon Photographer, Photo recording of <A LIFE> **Advisor** **LEE Kangsan** Curator of Jeonbuk Museum of Art
General Planner **MOON Jaeseon** Curator, Director of Blue Art Festa hosted by Jeonnam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Design** movisual